

삼성의 변화동력 '사장단회의', 뭘 남겼나

오는 **18일, 2013년** 삼성 사장단 회의올해 마지막 개최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입력: 2013.12.16 07:29:38



김종호 삼성전자세트제조담당 사장,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김영기 삼성전자네트워크산업부 사장,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이선중 삼성벤처투자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 4일 오전 인사발령 후 처음 열리는 삼성 수요사장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 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3.12.4 머니투데이/뉴스1 © News1

매주 수요일 아침,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은 삼성그룹 관계자와 취재진들로 북적거린다. 삼성그룹의 사장단들이 모여 교양 강의를 듣는 수요사장단회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되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고참 사장부터 갓 사장을 단 신임 사장까지 바쁜 걸음으로 강의장으로 들어서고, 이들에게 한마디라도 듣기 위한 기자들로 복새통을 이룬다.

삼성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면서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벤처기업보다 더 혁신적인 그룹이다. 수요사장단회의도 그 변화의 원동력 중 하나다.

삼성 사장단은 오는 18일 '긍정적 사고의 힘'에 대한 강의를 2013년 마지막으로 수요사장단회의를 마무리한다. 삼성 사장단은 올 한해 수요일 아침마다 40여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그룹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듣고 느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경영 전반에 반영되기도 한다.

◇경영 환경 변화 체득

삼성 사장단은 올해 첫 사장단 회의를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2013년 대한민국 어젠다'로 시작했다.

이후 이영조 경희대 교수의 '미·중·일 새 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 장승화 서울대 교수의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동향' 등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해서 청취했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와 문화에 대해서 접하며 글로벌 매너도 익혔다. 김성곤 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 교수는 "삼성재천(三星在天)과 삼성재호(三星在戶) 모두 신혼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사장들에게 휘호를 선물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재밌게도 이같은 사자성어는 삼성전자의 제품을 혼수로 들인다면 행복한 신혼을 만끽할 수 있다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중국 시장을 겨냥해 '빨간색'과 '8'만 강조하던 단편적인 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길을 제시한 것.

일본에 대해서도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일본 아베 정권의 성격과 일본 정국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이 나와 본격적으로 '일본 전자산업 동향'에 대해 강연했다. 하지만 해당 강의에는 경쟁사에 대한 언급이 많아 삼성 측은 강연 내용을 공개하길 거부하기도 했다.

◇'삼성'의 위치와 나갈 길 모색

사장단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 삼성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도 잊지 않았다.

케빈 켈러 다트머스대학 교수는 10년 전, 삼성에 '더 발전해야'라고 충고했지만 올해 사장단 회의에 와서는 '성공적인 브랜드' 사례로 '삼성'을 꼽기도 했다. "패스트 팔로워는 전형적인 모델이 있지만, 이는 삼성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삼성의 성장모델은 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같은 혁신은 이어질 것이고 '추종자'라는 별칭은 더이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부터는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혁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기도 했다. 이는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이 특히 중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취임 25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날에도, 올해 초 신년 인사에서도 '사랑받는 기업'이 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전' 강조 또 강조

수요 사장단회의는 각 계열사 책임자들에게 '안전'을 강조하는 소통 창구로 쓰이기도 했다. 올해 초 삼성 수요사장단회의에서는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 사장이 "준법 경영활동을 지속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과거 문제가 준법 의지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있는 만큼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안전'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삼성이 준법경영에 대한 점검과 감시, 평가와 동시에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준법지수를 임원평가 항목에 넣겠다고 엄포한 것도 이 자리에서 이뤄졌다.

이후에도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는 '안전, 리더의 역할'을 배우기도 했다. 김동수 삼성석유화학 고문이 강연자로 나서 안전이 기업경영에 얼마나 필수적인 사항인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안전에 대해 각성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공유했다. 이는 거듭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의혹이나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사고 등을 겪으며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